

재정 관리



2001년은 전 세계 사람들의 삶 속에 평생 각인될 해였다. 11월 연차 대회에서 고든 비 힝클리 회장(1910~2008) 교회 회원들에게 다음의 권고를 주셨다.

“경제는 특히 취약합니다. 우리는 자립에 관해서, 부채에 관해서, 검소에 관해서 거듭, 거듭 권고를 받았습시다.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것 때문에 무거운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부친은 저에게 가족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검소한 집을 지어,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즐겁고 안전한 가정이 되게 가꾸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가능하면 빨리 주택 융자금을 갚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내와 자녀들이 거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러한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랐습시다. 저는 이 교회의 회원인 여러분에게 가능하면 부채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살펴볼 때를 대비하여 약간의 돈을 저축해 두실 것을 권고합니다.”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많은 교회 회원들은 사랑하는 선지자의 권고를 듣고 생활 방식을 바로 잡았다. 재정 상태를 돌아보고 단계적으로 부채를 상환하며 미래를 위해 저축을 시작했다. 사람들은 자유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

6년 뒤, 제일회장단은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리라는 아주 기본적인 소책자 두 권을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했다.

그러자 어떤 회원들은 사고 방식과 생활 방식을 더욱 적극적으로 조정했다.

그들은 이 문제를 가족들과 상의하며 가정을 질서있게 만들기 위해 추가적인 단계를 밟았다. 마음이 든든해지니 훨씬 평안해지고 간증은 강화되었다. 반면 일부는 그렇지 못했다.

1년 뒤, 바로 경제가 휘청거리기 시작했고 이듬해에는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전 세계적 불황이 덮쳤다. 이런 비극이 닥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경고 하신 선지자와 사도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가족 재정에서 제일 회장단은 이런 권고의 말씀을 주셨다.

“후기 성도들은 약간의 돈을 떼어 두고 역경에 대비하라는 권고를 수년 동안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안전과 복지에 해아릴 수 없는 보탬이 됩니다. 모든 가족에게는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들의 필요 사항을 해결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세상의 어디에 살고 계시든지, 여러분의 재정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역경에 대비할 것을 권고합니다. 우리는 검소하게 지출하고, 구매할 때 스스로 자제하여 부채를 피할 것을 여러분께 촉구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빨리 부채를 상환하고, 이 속박에서 해방되십시오. 약간의 돈을 정기적으로 저축하여 재정 예비금을 점차적으로 모으십시오.

여러분이 자신의 부채를 갚고 재정 예비금을 지니고 있다면, 설령 예비금이 적더라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한층 더 안전함을 느끼게 될 것이며 마음에 더 큰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족 재정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가족 재정에서 가르치는 기본적인 원리는 십일조와 헌금을 내며, 부채를 피하고, 예산 계획을 활용하고, 예비금을 모으며, 가족 구성원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 영원한 원리는 이미 많은 책에서 인용되고 쓰여졌다. 전 세계 교회 회원들은 이 원리들을 따를 때 받는 축복에 대해 간증할 수 있게 되었다.

자원 관리와 관련해 지역 회장단은 다음의 도전 과제를 주셨다.

-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가족 재정을 가르치고 그 원리대로 산다.
- 회원들이 자신의 수입 범위 내에서 살도록 격려한다.
- 저축액을 두 달 치 월급만큼 늘린다.

2001년에 힝클리 회장은 어려운 시기를 대비하도록 이 같은 일을 권고하셨다. 그 시기는 이제 엄청난 위력의 폭풍우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흥미롭게도 이 폭풍우는 준비된 자나 준비되지 않은 자 모두에게 쏟아질 것이다. ■

전세계 한인 청년대회 활동 소개

전 세계 한인 청년대회(이하 청년 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톱니바퀴가 맞물리듯 홍보, 기획, 예산 등의 각 분야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프로그램 준비도 마찬가지이다. 가장 핵심적인 분야인 만큼 보다 면밀한 점검을 통해서 계속 담금질을 하는 중이다. 청년 대회의 3박 4일을 책임질 다양한 프로그램들. 때로는 즐겁게, 때로는 영적으로 마무리될 그 활동과 세미나들을 소개한다.

1. 첫째 날 8월 12일

청년 대회는 송실대학교 공연장에서 그 역사적인 막이 오른다. 3시 30분부터 시작되는 개회 모임은 약 천여 명의 청년 독신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첫 모임이니만큼 지도자들의 말씀 외에도 합창과 DVD 관람 등의 다양한 순서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때 상영 될 DVD는 '시온으로 모이자'는 제목으로 한국 교회의 역사를 소개하고, 조국에서 시온을 건설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송실대학교 공연장

일인지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첫째 날의 두 번째 프로그램은 '문화의 밤' 이라는 이름으로 역시 송실대학교 공연장에서 진행된다. 그룹별 발표를 통해서 서로가 친해지고 한 마음이 되고자 계획된 이 프로그램은 청년 독신들이 준비한 각종 발표로 채워진다. 일찍이 2005년에 있었던 한국 교회 헌납 50주년 기념 문화의 밤에서 그 재능을 뽐냈던 청년 독신들은 이번에도 잘 준비된 공연으로 자신들의 축제를 스스로 빛낼 예정이다. 현재 사물놀이, 기악 퍼포먼스, 스포츠 댄스, 연극, 탈춤, 에어로빅, 라디오 쇼, 스윙댄스 등의 공연이 두세 개 스테이크 연합으로 준비되고 있으며 청년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성인들의 공연인 위트니스 중창단, 온누리 합창단, 그리고 썬여림 합창단도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또한 국내에 있는 청년 독신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유학 중이거나 살고 있는 청년 독신들도 BYU-하와이, BYU-프로보, 시애틀,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함께 공연을 준비해 발표할 계획이다.

2. 둘째 날 8월 13일

첫째 날 프로그램이 청년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흥겨운



송실대학교 체육관

잔치로 이루어졌다면, 둘째 날 오전과 오후는 영을 고양시키는 세미나로 진행된다. 영등포 와드와 동작 와드, 그리고 송실대학교에서 각각 열리는 세미나는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을 포함하여 각계각층의 강사들이 풍성한 이야기거리를 준비하고 있다. 강사들이 다양한 만큼 '선교 사업이 나의 삶에 주는 의미'에서부터 '정신적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준비와 노력', '운동을 통한 건강관리', '전문 직업을 알아봅시다', '나의 유학, 국내 정착 이야기', 그리고 '행복한 가정' 까지 세미나의 주제도 다양하다. 하지만 영원한 결혼을 준비하고, 선교 사업을 준비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서 희망차게 미래를 준비하고, 조국에서 시온 건설의 소중한 의미를 이해시킨다는 세미나의 목적만은 변함이 없다. 청년 독신들은 영등포 와드, 동작 와드, 송실대학교 중 한 곳을 선택해서 그곳에서 열리는 모든 세미나를 들을 수 있으며 그 후 송실대학교 체육관으로 모이게 된다.



청년 대회에 참석하는
 신권 지도자들: 왼쪽부터
 쿠엔틴 엘 쿡 장로,
 스티븐슨 장로, 최윤희
 장로, 아오야기 장로.

저녁 식사 후 송실대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봉사 활동이다. 청년 독신들은 생필품으로 구성된 패킷을 직접 꾸리고, 그렇게 꾸려진 생필품 꾸러미들을 서울시에 전달한다. 서울시에서는 그것들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 줄 계획이다.

봉사 활동이 끝난 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우정의 밤'이 열린다. 제목 그대로 우정을 나누고 하나가 되기 위해 준비된 우정의 밤은 단체 율동 및 무용으로 진행된다. 천여 명의 인원이 함께 손을 잡고 화려한 무용의 세계로 빠지게 될 두 시간 남짓의 프로그램을 끝으로 대회 이틀째는 막을 내린다.

3. 셋째 날 8월 14일

다양하고 활동적인 프로그램이 많아서 청년 독신들에게 가장 즐거운 하루로 기억될 셋째 날 역시 영등포 와드에서 있을 세미나로 문을 연다. 청소년 시절 새벽 세미나리를 통해서 하루를 충만하게 시작했던 것처럼 청년 독신들도 오전

세미나를 통해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행복한 시온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신권 지도자에게서 가르침을 들은 후, 청년 독신들은 본격적인 활동 시간을 갖는다.

한강 시민공원 여의도 지구에서 펼쳐지는 프로그램은 그룹별 스포츠 활동으로 시작된다. 청년 독신들은 자전거 타기, 인라인 스케이트 타기, 농구 등 다채로운 스포츠를 즐길 수 있으며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통해 또래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스포츠 활동이 끝나면 청년 독신들은 옷을 갈아입은 후 이번 청년 대회 활동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한강 유람선에 탑승하게 된다. 청년 독신들은 유람선의 좌우로 펼쳐지는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며 자유와 즐거움, 그리고 같은 가치관을 가진 친구들과의 우정을 만끽하게 된다. 유람선에서의 활동은 자신의 재능을 선보일 수 있는 자기 뽐내기과 그룹별 발표 등이 준비되어 있다.

깊어가는 여름밤,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 찬란한 야경, 그리고 좋은 친구. 청년 대회의 마지막 밤은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모아놓은 듯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 될 것이다.

4. 넷째 날 8월 15일

청년 대회의 마지막 날인

8월 15일에는 3박 4일간의 뜨거웠던 대회를 간추리고 정리하는 '지도자와의 모임'이 계획되어 있다. 셋째 날 저녁 프로그램인 한강 유람선 탑승이 활동의 꽃이라면, 영등포 와드에서 갖게 될 이 지도자와의 모임은 청년 대회에 있어서도, 그리고 모든 청년 독신들 개인에게 있어서도 역사적인 순간이 될 전망이다. 그 이유는 청년 대회를 위해 직접 방문한 십이사도 정원회의 쿠엔틴 엘 쿡 장로가 이 프로그램에 함께 하기 때문이다. 쿡 장로는 말씀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시온으로 모이자'라는 대회 주제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이 땅의 청년들, 전 세계의 모든 한인 청년들에게 용기와 희망,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계획이다.

지도자와의 모임이 끝난 후에는 아쉬운 이별의 시간만이 남는다. 3박 4일 동안 우정과 사랑을 나누고 간증을 전했던 청년 독신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다.

청년 대회 준비 위원회에서 준비한 공식 프로그램은 이것이 마지막이다. 일정표에도 지도자와의 모임이 끝나는 오후 12시부터는 그저 '귀가'라고 적혀 있을 뿐이다. 이후의 프로그램은 청년 독신들이 그들의 인생 속에서 직접 만들어가야 한다. 그것이 선교 사업이든, 영원한 결혼이든, 그리고 시온으로 모이는 일이든.

모든 프로그램은 준비되었다.

청년 독신들이여, 시온으로 모이자.



한강 유람선

지난 2월 14일, 안양 스테이크 안산 와드의 이혜근 형

제 가족이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돌아왔다. 2년 만의 귀국이였다. 그들이 한국행을 결심하기까지는 극적이라 할 만큼 여러 일들이 있었다.

이혜근 형제와 아내인 정은희 자매, 그리고 세 자녀들은 뉴질랜드에서 행복하고 안락하게 생활했다. 이혜근 형제는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으며 건축 설계 관련 프로젝트 매니저로 좋은 제의를 받은 상태이기도

했다. 자녀들인 지우와 석우, 그리고 승우도 이국땅에서의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었다. 뉴질랜드 행을 결심하게 된 계기였던 정신없고 바쁜 삶을 떠나 보다 풍요롭고 여유롭게 살고자 하는 소망이 바야흐로 막 이루어지려던 참이었다. 이혜근 형제는 뉴질랜드에서의 2년을 돌이키며 이렇게 말한다. “흠어져 있는 퍼즐 조각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한 조각을 집어 올려놓으면 그것이 제자리이고, 또 한 조각을 집어 올려놓으면 제자리였습니다.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렸던 뉴질랜드에서의 생활은 주님의 손길로 맞추어진 퍼즐 조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두 부부의 마음속에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에 보답하고 싶다는 또 다른 소망이 생겨났다. 그 보답이란 부름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두 사람이지만 웬지 그것만으로는 미흡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결국 두 사람은 자신들이 미흡하다고 느꼈던 감정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맞춰진 퍼즐 조각

- 안산 와드 이혜근 형제 가족 -



왼쪽부터 첫째 딸 지우, 이혜근 형제, 정은희 자매, 막내 승우, 첫째 아들 석우.

그것은 바로 모국에서 봉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었다. 뉴질랜드에서도 부름을 받고 봉사할 수 있지만, 그래도 더 잘 봉사할 수 있는 곳은 바로 한국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두 사람은 고민했다.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혜근 형제는 아내에게 시간을 갖고 좀 더 신중히 생각해 볼 것을 제안했다. 정은희 자매는 고민하는 남편을 위해 이혜근 형제가 현명하고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했다. 두 사람의 고민과 기도가 깊어가던 어느 안식일 오후, 이혜근 형제가 정은희 자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모두 말해 봐요.”

정은희 자매는 자신의 생각을 모두 이야기했다. 그러자 이혜근 형제가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난번에 성전에 갔을 때부터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전해지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한국으로 돌아오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의논했고, 금식을 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즈음 두 사람의 결심을 굳히는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다. 리아호나에서 우흐트도르프 회장의 다음 말씀을 읽은 것이다. “회원들이 경제 난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에 머물며 교회를 세울 때, 미래 세대들은 그러한 용기 있는 현대의 개척자들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이혜근 형제는 이

권고를 자신이 내려야 할 결정의 답으로 받아들이고 한국으로의 영구 귀국을 결심했다. 귀국은 이 형제 가족에게 많은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특히 자녀들의 교육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기꺼이 순종했다. 부모의 결정에 말없이 지지를 보내는 자녀들을 보며 정은희 자매는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며 이렇게 말한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교육 조건 등이 아이들에게 물려 줄 유산이라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더 귀중한 유산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더 많이 봉사하고 더불어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직 순수한 신앙만으로 귀국을 결심한 이혜근 형제 가족. 가족들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을 때 가족 모두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그들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은 이제 귀국과 동시에 맞춰졌다. 완벽한 하나의 그림으로 그들을 묶은 것은 신앙과 사랑, 그리고 주님의 섭리였다. ■



BYU 윈드 심포니(Wind Symphony) 대한 공연

전국에 퍼진 아름다운 소리

바람이 불었다. 지난 5월 6일부터 13일까지, BYU 윈드 심포니가 선사한 아름다운 음악의 바람이 불었다. BYU 윈드 심포니는 바이올린 등의 현악기를 배제한 목관악기와 금관악기, 그리고 타악기만을 사용하는 콘서트 밴드. 이름에 붙은 윈드(Wind) 바로 '관악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BYU 학생들로 구성된 윈드 심포니는 198편에 있었던 첫 연주를 시작으로 미국 내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하와이, 뉴질랜드, 호주, 스칸디나비아, 러시아 등 세계 각국을 방문하며 공연을 해 오고 있다. 윈드 심포니의 이 같은 해외 공연은 3년 마다 이루어진다. 올해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서 5개 나라를 다니며 공연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BYU 윈드 심포니가 해외 공연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에 윈드 심포니의 새로운 지휘자로 임명된 도널드 엘 피터슨 박사는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 “학생들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교감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학생들은 각 문화의 훌륭한 점을 배우게 되고, 그 나라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문화, 어떤 언어를 가졌건 음악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음악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점을 가르치기 위해 저희들은 공연을 다닙니다.”

피터슨 박사의 말처럼 BYU 윈드 심포니가 펼친 한국에서의 공연도 화합과 어울림이 빛나는 시간들이었다. 윈드 심포니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을 돌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당 지역의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했다. 윈드 심포니가 펼쳐내는 바람의 소리와 지역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선율은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했던 것처럼 조화롭게 어우러졌다.

미 8군 밴드와 한 무대에 섰던 서울 KBS 홀에서의 공연도 마찬가지였다. 1부 순서에서는 BYU 윈드 심포니가 감미롭고 서정적인 연주를 선보였고, 2부 순서에서는 미 8군 밴드의 힘찬 공연이 이어졌다. 관악기를 주축으로 한 윈드 심포니의 아름다운 연주와 그들이 입은 제복만큼이나 깔끔하고 멋진 연주를 펼친 미 8군 밴드의 공연만으로도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열띤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하지만 이어진 두 밴드의 협연은 더욱 빛났다. 윈드 심포니의 검은색 연주복과 미 8군 밴드의 녹색 제복이 한 무대에서 섞이며 자리를 잡은 순간, 각자 다른 사람의 입과 손을 통해서 뿜어 나온 소리들이 하나로 합치지며 공연장을 울렸다. 그야말로 협연이요, 합주였다. 두 번째로 연주한 Pines of Appian Way는 잔잔한 소리로 시작되었다. 수면 위에 잔물결이 일듯 객석 전체로 퍼져나간 소리는 어느새 우렁차게 변하면서 관객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특히 트럼펫과 트롬본의 연주는 여름날의 시원한 소나기를 연상시켰다.

관객들의 뜨거운 갈채에 두 밴드는 앵콜곡을 연주했다. 아리랑이었다. 관객들은 한마음이 되어 아리랑을 불렀다. 파란 눈의 외국인들이 연주하는 아리랑에 우리말 노래가 덧붙여진 그 순간, 무대와 객석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언어의 경계, 국적의 경계 또한 사라졌다. 음악을 매개로 완벽한 하나를 이룬 것이다. 이 같은 하나 됨은 단국대학교에서도, 한국종합예술학교에서도, 우송대학교에서도, 그리고 대구와 부산에서도 똑같이 펼쳐졌다.

BYU 윈드 심포니는 공연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한국의 문화를 체험했다. 한국의 고궁을 둘러보고, 회원들과 함께 노변의 모임에 참석하고, 월요일에는 대구 지역의 각 가정을 방문해 가정의 밤도 가졌다. 윈드 심포니 단원들은 일주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국에 머물며 한국 회원들과 함께 웃고, 감동 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피터슨 박사는 윈드 심포니의 모든 단원들을 대신해 한국에서의 공연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이런 공연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더욱 좋아졌습니다. 한국 회원들과 교류를 하면서 말로는 표현 못 할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성도들과 만났을 때 성신을 느꼈던 점이 가장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그것은 저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

숨은 일꾼들, 시설 운영 사무소 소개

제 일회장단에서는 회원들 스스로가 집회소를 청소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자신이 예배를 보는 집회소를 청소하고 관리하는 일이야말로 봉사와 희생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다. 회원들이 집회소를 청소한다면 전국 다섯 개 지역에 있는 시설 운영 사무소는 집회소의 유지 및 보수, 그리고 관리의 업무를 맡는다. 회원들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집회소 구석구석을 시설 운영 사무소가 책임지는 것이다. 안식일이 오기 전 일주일 동안 시설 운영 사무소 직원들은 담당 지역의 집회소를 돌아보면서 청소와 보수를 한다. 펼쳐진 의자를 정리하고, 고장 난 탁자를 고치고, 집회소에 필요한 물품들을 챙긴다. 가까이 집회소 청소를 하는 회원들의 순종에 시설 운영 사무소 직원들의 섬세한 손길이 더해져 보다 깨끗하고 영화로운 안식일 예배를 볼 수 있게 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그들, 시설 운영 사무소에 대해서 알아본다.

1. 각 지역의 시설 운영 사무소

대전 시설 운영 사무소: 대전 시설 운영 사무소는 대전 선교부 지역 내의 스테이크와 지방부인 대전, 청주, 전주, 광주, 그리고 순천과 홍성을 담당한다. 직원으로는 김재택 형제가 소장으로 일하고, 장상호 형제, 이병환 형제, 이상길 형제, 이후현 형제가 함께 일하고 있다.

부산 시설 운영 사무소: 부산 시설 운영 사무소는 부산 선교부 관할 지역인 부산시와 경상남도, 그리고 경상북도의 모든 집회소를 담당한다. 시설소장인

안경일 형제와 김수남 자매가 여러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박규열 형제, 한중완 형제, 김영철 형제가 각각 부산과 마산, 그리고 대구 지역을 관리한다.

서울 남 시설 운영 사무소: 서울 남 시설 운영 사무소는 인천 스테이크, 수원 스테이크, 서울 남 스테이크와 서울 영동 스테이크 등을 담당하고 있다. 김인회 형제가 소장으로 근무하고, 정의철 형제가 사무를 보는 가운데 안재석 형제, 송유수 형제, 이남호 형제가 각 지역을 담당한다.

서울 북 시설 운영 사무소: 서울 북 시설 운영 사무소는 서울 선교부 지역인 서울, 서울 동, 서울 동대문, 서울 북 스테이크와 강릉 지방부, 그리고 서울 동 종교교육원을 관리한다. 서울 북 시설 운영 사무소의 구성원은 소장인 송병철 형제, 서수석 자매, 그리고 각자의 지역을 담당하는 세 명의 관리인 한상선 형제와 이춘심 형제, 김홍민 형제가 있다.

서울 중앙 시설 운영 사무소: 가장 최근에 생긴 서울 중앙 시설 운영 사무소는 강서 스테이크와 안양 스테이크, 제주 지방부, 그리고 한국 관리 본부와 배부 센터를 담당한다. 서울 중앙 시설 운영 사무소의 구성원은 3명이다. 소장인 이성진 형제, 사무를 보는 심봉석 형제, 그리고 관리인으로 송규현 형제가 일하고 있다.

2. 시설 운영 사무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가?

“시설 운영 사무소에서는 교회 건물의

청소와 유지 보수 말고도 회원들의 청소 참여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각 집회소에서 요청하는 물품들을 신청 받아 조달해 줍니다.”(김재택 형제, 대전 시설 운영 사무소)

“시설 운영 사무소에서는 교회가 정한 표준에 따라 신권 지도자들과 협의하여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한 뒤 집회소 및 기타 교회 소유 건물의 개선, 보수 등의 크고 작은 공사를 시행합니다. 또 청결 유지, 가구와 비품들의 구매 등 교회의 여러 요구 사항들에 따른 일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행하며 지원합니다.”(심봉석 형제, 서울 중앙 시설 운영 사무소)

한국 관리 본부에서 운영 관리 과장으로 일하는 이호상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시설 운영 사무소는 최일선에서 신권 지도자와 회원들과 만나는 대민 창구의 역할을 합니다. 한국 관리 본부 시설부에 집중 되어 있던 기능이 시설 운영 사무소로 이동하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 처리 또한 신속해졌습니다.”

3. 시설 운영 사무소는 어떻게 회원들을 돕고, 회원들은 어떻게 시설 운영 사무소를 도울 수 있는가?

시설 운영 사무소는 신권 지도자와 회원들이 교회 건물에서 영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원 사항을 해결해주는 곳이다. 시설 운영 사무소에서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청소, 소모품 공급, 건물 보수, 회원들의 교육 등으로 나뉜다. 청소는 카펫 청소, 전지 작업, 왁스 작업, 페인트 칠 등 회원들이 하기

힘든 세부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을 주로 한다. 그 밖에 소모품 공급과 건물의 보수도 회원들이 보다 깨끗하고 나은 환경에서 활동을 하고 예배를 볼 수 있도록 시설 운영 사무소가 신경 쓰는 부분이다. 또한 시설 운영 사무소는 회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청소 방법을 교육하면서 집회소를 관리하려는 회원들을 돕고 있다.

회원들이 시설 운영 사무소를 돕는 일은 의외로 간단하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는 것이다. 서울 중앙 시설 운영 사무소에서 일하는 이성진 형제는 “집회소를 더욱 깨끗이 청소할 때 대청소나 보수 등 기타 작업의 필요성이 줄어듭니다.”라고 말한다. 자신이 속한 집회소를 열심히 청소하는 것은 시설 운영 사무소를 돕는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업을 돕는 일이기도하다. 회원들이 집회소 관리에 참여하는 주된 목적은 청소년과 저활동 회원을 포함한 모든 회원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유익하게 하고 축복하기 위한 것이다. 회원들은 집회소 관리를 통해 주님의 예배의 집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된다. 다음은 시설 운영 사무소에서 말하는 ‘교회를 깨끗하게 만드는 법’이다.

- 사용한 교실 정리 정돈하기(의자 접기, 질판 지우기, 진공 청소하기)
- 화장실 휴지통 비우기
- 세면기구 주변 물기 제거하기
- 쓰레기봉투 교회 밖으로 배출하기
- 주방 설거지 및 음식물 쓰레기 되가져가기
- 유리창 및 출입문단속 하기
- 시설물 파손이나 기기 고장이 있을 때 시설 운영 사무소로 신속하게 알리기

4. 그들의 간증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건물 관리에



위쪽부터 세 번째 까지: 시설 운영 사무소 직원들은 회원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청소하고 관리한다.(사진 모델: 대전 시설 운영 사무소) 맨 아래: 한 자리에 모인 부산 시설 운영 사무소 직원들.

봉사의 모범을 보이는 많은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원들이 많을 때 더 많은 구도자가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을 통해 교회에 대한 좋은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김인회 형제, 서울 남 시설

운영 사무소)

“저는 집회소 건물 청결 관리를 하면서 항상 주님의 영을 느낄 수 있는 모임이 되도록 만들자고 다짐합니다. 또한 그렇게 다짐하며 일을 할 때 스스로도 주님의 영을 느낄 수 있습니다.”(송규현 형제, 서울 중앙 시설 운영 사무소)

“최근 약 3주간 정말 실 새 없이 바빴습니다. 3일간의 서울 북 스테이크 대회 준비를 시작으로 1박 2일 동안 강원도 일대의 집회소를 둘러보고, 다음 날에는 바로 신촌 와드 헌납식 준비를 하느라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빠듯한 일정을 지쳐 있을 때 저는 저희 사무실의 다른 분들께서 희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희생적인 헌신을 쏟아 부으면서도 전혀 불평불만이 없는 그분들의 노고와 신앙에 큰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송병철 형제, 서울 북 시설 운영 사무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하신 후 첫 번째 하신 일은 그분의 육신을 만져보도록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신을 만져보고 그분이 실재하심을 알았던 것처럼 회원들과 구도자들이 깨끗한 교회 건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아 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작고 단순한, 그리고 매주 반복되는 육체적인 일이지만 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집회소에서 주님의 영을 느낄 수 있습니다.”(이상길 형제, 대전 시설 운영 사무소)

“회원들의 온전한 교회 생활을 위해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우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제 일을 정직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표준대로 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안정일 형제, 부산 시설 운영 사무소) ■

금정 와드 헌납식



지난 2007년 4월 26일, 지역 칠십인인 오희근 장로의 감리로 부산 스테이크 금정 와드 헌납식이 있었다. 금정 와드는 2007년 9월에 온천 와드로부터 분리되었다. 하지만 독자적인 건물이 없었기에 오랫동안 온천 와드와 함께 건물을 사용해 왔다. 그러던 중에 2007년부터 건물 부지를 구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고, 6년이 흐른 지난 2008년 2월에 신축 집회소의 첫 삽을 뜨게 되었다. 시장과 주택가 한 가운데 자리잡은 금정 와드는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로 회원들은 물론이고 이웃 주민들에게도 찬사를 듣고 있다. 금정 와드 청남인 김민수 형제는 “성전처럼 아름다운 건물을 갖게 되어 정말 기쁘고 감사드립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금정 와드의 이계원 감독은 헌납식 말씀에서 새 건물을 갖기 위해 노력했던 지난 시간을 회상하며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회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헌납 기도예 앞서 말씀을 한 오희근 장로는 성전과 집회소의 유사성을 언급하면서 “(집회소는) 구원을 위한 의식이 이루어지고,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며,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는 공간입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집회소 내의 경건과 청결은 주님을 존중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과 지금 갖고 있는 감사함을 앞으로 잊지 않기를 당부했다. 이번 금정 와드 헌납식에는 약 30여명의 성도들이 참석해서 기쁨을 나누었다. ■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광주 스테이크

나주 지부 회장: 강성인(전임: 이성남)

대구 스테이크

대구 스테이크 회장: 이병만(전임: 배덕수)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 감독: 백길환(전임: 조희철)

서울 강서 스테이크

개봉 와드 감독: 권장혁(전임: 전병기)

방화 와드 감독: 유병철(전임: 박광호)

서울 남 스테이크

동작 와드 감독: 김영곤(전임: 안상철)

봉천 와드 감독: 이수환(전임: 김덕호)

신림 와드 감독: 최창순(전임: 윤세영)

영등포 와드 감독: Clark, Colin Matthew(전임: 김영환)

수원 스테이크

수원 스테이크 회장: 구윤성(전임: 구승훈)

울산 지방부

호계 지부: 이수철(전임: 김재균)

인천 스테이크

부평 와드 감독: 김오(전임: 이영덕)

전주 스테이크

전주 스테이크 회장: 김용록(전임: 이철오)

남원 지부 회장: 심인섭(전임: 최정균)

청주 스테이크

온양 지부: 송영현(전임: 양덕준)

흥덕 와드 감독: 이상길(전임: 김낙환)

홍성 지방부

홍성 지방부 회장: 강지훈(전임: 최성돈)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국내 7명/해외 1명



길의진 자매
인천 스테이크
부평 와드
대전 선교부



유장훈 장로
순천 지방부
순천 지부
서울 서 선교부



남윤지 장로
청주 스테이크
흥덕 와드
미주리 주
인디펜던스 선교부



정예진 자매
홍성 지방부
서산 지부
서울 서 선교부



박장택 장로
순천 지방부
여수 지부
서울 서 선교부



진민용 장로
청주 스테이크
흥덕 와드
부산 선교부



신호필 장로,
조길자 자매
광주 스테이크
농성 와드
대전 선교부

알립니다

각 지역의 다채로운 소식을 교회 공식 홈페이지 www.ld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